

폐허의 검은 숨결

배운환展 8. 14~11. 9 스페이스K서울

안경수展 8. 21~2026. 1. 18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

회화는 여전히 세계를 감각할 수 있는가. 이 단순한 물음은 오늘날 유행처럼 번지는 이미지 과잉의 세계에서 오히려 더 낯설게만 들린다. 모든 감정이 빠르게 소비되고, 감각이 데이터의 속도로 측정되는 시대에, 회화는 여전히 세계를 느끼고 감각할 수 있을까. 이는 단순히 재현의 문제나 형식의 변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화가 여전히 유효하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느낌(혹은 멈춤)의 감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는 몸의 기억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이스K서울의 배운환과 아라리오뮤지엄인스페이스의 안경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 느낌의 감각을 회복한다. 한 사람은 감정의 심연으로 잠수하고, 다른 한 사람은 폐허의 층을 따라 기억의 바닥으로 내려간다. 그들의 회화는 깊이의 서로 다른 단면에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감각과 윤리의 온도를 다시 불러낸다.

배운환의 개인전 〈딤다이버〉는 어둠에서 시작된다. 그의 화면은 빛이 사라진 검정의 바다처럼, 서사의 중심을 잃은 채 감정의 수심으로 가라앉는다. ‘딤다이버’는 단순히 잠수하는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숨을 참는 기술보다, 몸의 모든 감각을 외부의 압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감각적 훈련이 필요한 법이다. 그들은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신 뒤에 천천히

수압에 적응하며 내려간다. 바닷속 깊이 내려가면서 빛은 사라지고, 방향 감각이 흐려지며,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남는다고 한다. 딤다이버는 바로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몸이 세계와 맞닿는 방식을 새롭게 배운다.

심연의 진동

그의 회화는 바로 그 호흡과 닮아있다. 칠흑의 거대한 캔버스 앞에 서면 색에 압도되어 시야를 빼앗기지만, 천천히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감정의 심박이 들려온다. 시작도 끝도 없이 가득한, 파편화된 서사의 구석구석으로 시선이 옮겨 다니면 천천히 그 어둠 속에 숨어있는 심박을 느끼게 된다. 배운환의 붓질은 급격한 움직임이기보다는 수십의 압력에 견디는 몸처럼 느리고, 점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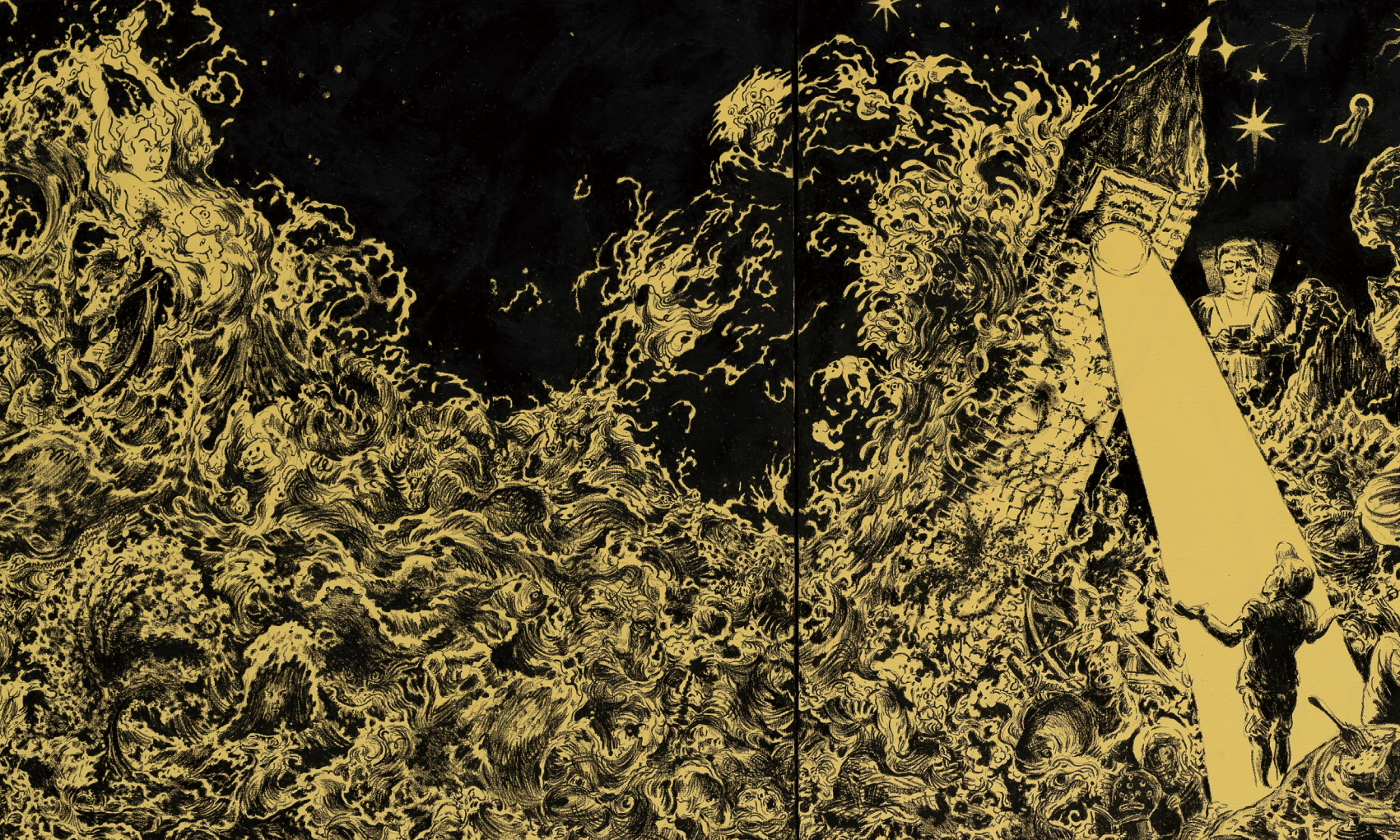
배운환의 검정은 색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이 외부 세계의 압력에 적응하며 만들어낸 새로운 호흡의 리듬이다. 마치 딤다이버가 수압에 익숙해지기 위해 폐의 부피를 줄이고 몸 전체로 압력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배운환도 감정을 눌러 붓질로 밀어 넣는다. 이때 회화는 시각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감정이 압력으로 전환되는 신체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그의 검정은 숨을 참고 견디는 색이다. 감정의 수심, 불안의 체온, 그리고 고요 속에서 되살아나는 감각의 리듬이 공존한다. 그 안에서 인물들은 균형을 잡으려다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회화의 리듬을 이룬다. 그의 검정은 공허가 아니라 운동이다—세계의 심연에서 감정이 다시 태어나는 진동.

서사 중심에서 벗어나 추상, 감각적인 표현을 시도한 〈서커스〉(2025) 시리즈는 그 진동의 언어를 시각화하는 그만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뒤틀린 원근과 무너진 시공간 속에서, 인물들은 더 이상 이야기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의 몸짓이 되고, 형상은 감정의 흐름에 휩쓸린 채 흩어진다.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공기와 숨 막히는 정적의 순간을 포착한다. 진동은 또한 〈요람〉(2025)에서 흔들리는 배와 그 위의 인물들, 〈우린 잘 지내고 있어〉(2025)의 광부들이 살아남기 위해 움직이는 몸을 통해서도 표현된다. 그들의 몸짓에는 위태로운 생의 진동이, 그 진동 속에는 회화의 원초적 리듬이 깃들어 있다. 이처럼 배운환은 그 리듬을 통해 불안을 시각화하며, 불안 자체를 감정의 언어로 변환한다.

이에 반해 안경수의 회화는 시간의 깊이 속으로 천천히 내려간다. 그의 세계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단단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잔향처럼. 그는 세계의 잔해, 재난 이후의 풍경, 기억되지 못한 시간의 조각들을 그리고, 그 속에 침묵의

안경수 〈수영장〉 캔버스에 아크릴릭 38×46cm 2025_ 안경수(1975년생)는 재난 지역, 철거 도시, 참사 현장 등 상흔의 풍경을 겹쳐 하나의 랜드스케이프로 그려왔다. 버려진 땅에서 자라난 초목, 곰팡이 등으로 생명의 순환을 드러냈다.





윤리를 새긴다. 제주의 멈춘 공사장, 해일이 지나간 해변, 홀로코스트의 그림자를 품은 수영장. 그의 시선은 이 장면들을 목격의 증거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지 못한 것’,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그림의 여백 속으로 끌어들인다. 그의 붓질은 현실을 고발하기보다, 현실의 침묵을 기록한다. 색은 차갑게 가라앉고, 표면은 매끈하며, 구조는 느리게 흔들린다. 그의 회화는 재현이 아니라 응시이며, 응시는 곧 감각의 윤리다. 안경수의 개인전 〈겹겹〉에서는 매끈하지만 그 안에 시간의 더께가 스민 화면이 펼쳐진다. 그의 붓은 한 장면 위에 또 다른 장면을 포개고, 과거의 흔적 위에 현재의 빛을 엮는다. 그 층위가 ‘겹겹’이 쌓이면서 회화는 시간과 기억이 얹혀 만든 하나의 ‘지층’이 된다.

개밭이 멈춘 제주 함덕의 어느 공사장을 담은 〈거명 영〉(2025)은 더 이상 건축 공간이 아닌, 욕망이 식은 자리에 남은 검은 구덩이이자 자본의 언어가 실패한 세계의 단면과 닮아있다. 〈비치〉(2025)는 2004년 인도양대지진 이후, 쓰나미가 휩쓸고 간 말레이시아

해변을 그렸다. 복구된 휴양지의 평온한 수면 아래에는 여전히 재해의 상처와 불평등한 구조가 남아 있다. 자연과 자본, 국가와 인간의 불균형이 중첩된 풍경에서 작가는 잊힌 죽음과 지속되는 불평등을 바라본다.

재난이 지나간 자리

〈수영장〉(2023~25) 연작은 1944년 독일 다하우 근처에서 촬영된 수영장 사진에서 출발한다. 햇빛이 반사된 물결과 평온한 일상의 장면은 사실 체제의 폭력을 은폐한 채 작동하는 질서의 표면이다. 안경수는 그 빛의 평온함이 얼마나 쉽게 폭력의 언어로 변할 수 있는지를 드러내며, 일상의 고요 속에 잠복한 불안을 포착한다.

그의 작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사건과 재난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작가는 그 중심을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대신 그 재난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공기의 냄새, 기억과 망각 사이를 떠도는 침묵의 진동을 그린다. 그 냄새는 관객의 감각을 천천히 잠식해 가면서, 우리가



배운환 <돌고래들이 오고 있어>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일 파스텔 240×372cm(부분) 2020 배운환(1983년생)은 사회 부조리와 개인적 열패감을 블랙 코미디로 승화한다. 이번 전시에는 모노톤으로 화면을 구성해 감정의 밀도를 끌어올렸다.

애써 외면해 온 부재의 존재를 드러낸다. 그래서 안경수의 회화는 재난의 기록이라기보다, 지워졌으나 끝내 사라지지 못한 감정의 지도에 가깝다. 안경수의 그림 앞에 서면, 묘한 스산함이 밀려온다. 폭풍우 속에 내동댕이쳐 버려진 느낌. 그림 속 공기가 현실의 온도를 흔들어 놓는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사라진 이들과 그들의 시간이 여전히 세계를 감싸고 있음—을 감각하게 된다.

배운환과 안경수의 회화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출발하지만 어딘가에서 조용히 맞닿는 듯하다. 배운환의 어둠은 감정의 심연을 파고드는 내면의 언어이고, 안경수의 폐허는 기억의 층위를 되살리는 외부의 언어다. 한쪽이 불안의 진폭을 확장하고 있다면, 다른 한쪽은 망각의 틈을 더듬는다. 그러나 두 세계 모두 ‘감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지점을 향한다. 어쩌면 그들의 회화는 이미지의 과잉 속에서 느낌을 되찾기 위한 가장 느린 실험일지도 모른다. 그 안에서 배운환이 감정의 언어로 세계의 균열을 드러내고, 안경수는 기억의 언어로 세계의 잔향을 붙잡는다. 두 작가의 그림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을

감각하게 하는 회화’라는 문장으로 수렴되면서, 회화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빠름과 소음이 지배하는 시대에, 느낌과 침묵이야말로 가장 현대적인 저항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오늘날 누구도 회화가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다. 대신 회화는 세계의 부재를 감각하게 한다. 배운환의 검정은 내면의 깊이를 향한 호흡이 되고, 안경수의 겹은 역사와 윤리의 잔해를 더듬는 손길이 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천천히 잠수해 들어간다. 그들의 잠수는 절망일까, 아니면 감각의 회복을 향한 믿음일까. 만약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 부른다면, 그 믿음은 미세하고 조용하지만, 여전히 세계와 인간을 잇는 호흡 같은 것일 것이다. 그들의 그림을 보고 있자니, 회화는 호흡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든다. 깊은숨을 들이쉬고 작품의 ‘겹겹’을 따라 ‘딤다이빙’하는 호흡. 그 느린 잠수의 리듬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다시 천천히 다가온다.

/ 신 보 슬